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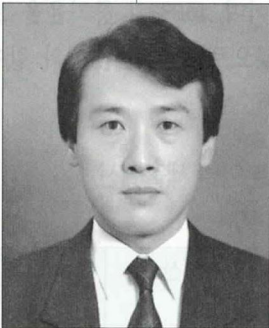
2003년 복지서비스부문 예산분석

Budget Allocation and Analysis for Social Welfare Services in 2003

1. 서론

한국사회는 지난 40년간의 산업화 과정에서 급격한 사회변화를 경험하였으며, 개개인과 그들의 가족 또한 격동의 세월이었다고 할 수 있다. 21세기의 새로운 대통령 선거에서 많은 국민은 보다 발전적이고 개혁적인 사회건설을 희망하였다. 이제 선성장 후분배의 정책기조에서 성장과 분배의 동시달성 또는 선분배 후성장의 정책기조로의 변화를 모색하여야 할 시점이라 하겠다.

가족기능의 지속적인 약화와 함께 이혼·사별 등에 기인된 가족해체현상의 급증으로 1인 가구,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정, 노인부부가구 등 비정형적 가족이 증가하면서 사회복지 욕구는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 또한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자아육구 증대, 자녀양육부담 강화 등의 사회변화는 21세기 사회문제로 예상되는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저출산 현상은 보건의료 수준의 향상과 공조하여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이어질 것



金勝權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가족팀장

이며, 결국 한국 사회에서의 노령화 추세는 급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즉,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은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도달하였으며, 2019년 고령사회에, 2026년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군다나 선천적·후천적 장애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약 39.0%가 일상생활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개인, 가족, 사회에서의 급격한 변화는 다양한 문제점을 표출시키고 있으며, 증대되고 있는 이들 영역에서의 복지욕구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는 정부예산의 효율적인 투입에 의하여 해결 가능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2003년도 사회복지서비스부문의 예산분석을 통하여 금년 한 해 동안 추진될 각종 정부정책을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사회복지서비스는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보육사업, 아동복지, 가정복지, 그리고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등의 분야로 구분하였다.

2. 2003년 사회복지서비스부문 예산분석

2003년 사회복지서비스부문의 예산은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8조 3510억 7200만원의 14.2%인 1조 1878억 8900만원으로 2002년의 13.4%보다 0.8%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또한 2002년 대비 순수 증가액은 1547억 900만원이며, 15.0%의 증가율을 보여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증가율 7.8%보다 약 2배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

표 1. 보건복지예산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02년 예산 (A)	2003년 예산 (B)	증감(B-A)
합 계	7,749,477(100.0)	8,351,072(100.0)	601,595(7.8)
- 인 건 비	125,265(1.6)	148,203(1.8)	22,938(18.3)
- 사 업 비	7,624,212(98.4)	8,202,869(98.2)	578,657(7.6)
• 사회복지	4,436,549(57.3)	4,710,897(56.4)	274,347(6.2)
기초생활보장	3,403,369(43.9)	3,523,008(42.2)	119,638(3.5)
사회복지서비스	1,033,180(13.4)	1,187,889(14.2)	154,709(15.0)
• 보건의료	358,887(4.6)	444,073(5.3)	85,186(23.7)
• 사회보험	2,828,775(36.5)	3,047,899(36.5)	219,124(7.7)

자료: 보건복지부, 「세입·세출 예산개요」, 2002. 12.

서비스부문의 예산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사회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이며, 복지국가로서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2003년 사회복지서비스부문의 분야별 예산을 살펴보면, 규모측면에서는 노인복지분야가 전체 서비스부문 예산의 32.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보육사업분야로 25.2%를 차지하였다. 2002년 대비 2003년의 예산 증가율 측면에서는 보육사업분야가 42.6%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다음은 장애인복지분야 9.8%, 아동복지분야 9.4%의 순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2002년도에 장애인복지분야 26.5%, 노인복지분야 26.4%, 보육사업분야 23.3% 등의 순으로 사회복지서비스부문에서 높은 예산증가율을 나타냈던 결과와는 대조적인 것이다. 이는 2003년도의 사회복지서비스부문 예산편성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속적인 저출산 대응정책과 여성의 취업육구 충족을 위한 정책에 초점을 둔 것이며, 아울러 장애인, 아동, 노인 등의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증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해된다.

여성 및 모·부자가정 지원사업 등 가정복지분야의 예산은 1.3%(2억 2800만원)가 감소한 177억 9900만원에 그쳤다. 그런데 동 분야의 2002년도 예산이 가정폭력 및 성폭력 사업의 여성부로 이관에 따라 2001년도보다 29.6%나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에도 계속 감소하였다는 점은 우리 사회에서 가족해체, 가족기능 저하 등의 현상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경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사회복지서비스부문의
2003년 예산은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8조 3510억 7200만원의
14.2%인
1조 1878억 8900만원으로
2002년의 13.4%보다
0.8%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표 2.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별 예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02년 예산 (A)	2003년 예산 (B)	증감(B-A)
계	1,033,180(100.0)	1,187,889(100.0)	154,709(15.0)
노 인 복 지	378,726(36.7)	390,353(32.9)	11,627(3.1)
장 애 인 복 지	232,667(22.5)	255,484(21.5)	22,817(9.8)
보 육 사 업	210,280(20.4)	299,939(25.2)	89,659(42.6)
아 동 복 지	77,086(7.5)	84,297(7.1)	7,211(9.4)
가 정 복 지 ¹⁾	18,027(1.7)	17,799(1.5)	△228(△1.3)
기 타	116,394(11.3)	140,017(11.8)	23,623(20.3)

주: 1) 여성 및 모·부자가정 지원사업을 말함.

자료: 보건복지부, 「세입·세출 예산개요」, 2002. 12.

1) 노인복지분야 예산

노인복지분야 예산이 전년도에는 장애인복지 예산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03년도에는 31%(116억 2700만원) 증가한 3903억 5300만원에 그쳤다. 동 분야의 예산이 낮은 증가를 하게 된 원인은 지난 해 경로연금의 예산증액이 지나치게 높아 이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한 데 기인한 것이며, 그 외 사업의 예산은 동등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대폭 증액된 것으로 분석된다.

노인복지분야는 크게 노인시설보호와 재가노인지원의 두 분야로 구분되며, 노인시설보호분야는 38.0%의 증가율을, 재가노인지원분야는 8.9%의 감소율을 보였다. 노인시설보호예산 중 운영비지원은 46.2%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원단가의 상향조정, 종사자의 교대근무지원 등을 위한 것이다. 즉, 무료양로시설, 무료요양시설, 무료전문요양시설에 입소된 노인의 지원단가를 대폭 상향조정하였고, 실비양로시설과 실비요양시설의 지원방법을 개소당 지원에서 수용인원당 지원으로 변경하면서 발생한 추가 소요예산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무료 및 실비 양로시설 생활보조원 등의 2교대 근무를 지원하기 위한 신규예산이 편성되었다. 이와 같은 시설보호노인을 위한 예산지원은 수용노인에게 적절한 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노인생활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시설의 기능보강을 위한 예산은 30.2%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시설의 증·개축, 신축, 개·보수 및 장비보강 등을 위한 것이다. 즉, 3개소의 양로시설 증·개축, 8개소의 요양시설신축, 34개소 전문요양시설 신축, 28개소 실비요양시설 신축, 1개소 실비요양시설 증·개축, 3개소의 실비요양시설의 개·보수, 10개소 노인복지회관 신축, 16개소의 노인공동작업장 신축 등이다.

재가노인지원예산 중 경로연금은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전년도 대비 12.8%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경로연금의 지급대상이 80만명에서 65만명으로 감소된 데 기인한다. 즉, 기초생활보장대상노인에 대한 경로연금지급은 33만 8천명에서 34만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경로연금지급대상은 46만 2천명에서 31만명으로 감소된 데 기인하는 것이다. 경로연금의 대상선정에 있어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는 방안, 즉, 재산규모를 농촌보다는 중소도시가, 중소도시보다는 대도시가 조금 더 상향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통한 지급대상의 확대를 고려하면 보다 발전된 노후소득보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재가노인지원예산 중 경로연금 다음으로 큰 규모의 사업은 경로당 지원사업으로 전국의 28,580개소에 대하여 난방비를 연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특히 주간보호시설 15개소, 단기보호시설 5개소, 가정봉사원 파견기관 15개소, 가정봉사원 양성기관 1개소를 추가 지원하고, 이들 시설 및 기관에 대한 지원단가를 증액하였다는 점은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맞벌이 가정의 증가를 감안한 보편적 노인복지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실비주간보호 시설 50개소에 대하여 시설당 3000만원을 지원한 것은 한 단계 발전된 노인복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사회변화에 적응하는 노인복지를 펼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노인건강진단을 위한 수가인상분 예산이 69.0% 증가하였고, 결식재가노인을 위한 식사배달사업 대상노인을 16,530명에서 20,000명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치매상담센터운영 지원대상을 48개소에서 96개소로 대폭 늘렸다. 또한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대한노인회관 신축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증액함으로써 노인복지의 내실화를 위한 적극적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03년도 신규사업으로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노인안(眼) 정밀검진 및 개안수술을 위한 지원이다. 즉, 1만 5천명에 대한 안과검진지원, 600안에 대한 백내장 수술비 지원, 100안에 대한 망막증 수술비 지원 등으로 7억 3400만원의 예산이 새롭게 편성되었다. 이는 노인의 복지수요를 실질적으로 충족시키는 현실적인 정책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다만, 대상노인의 선정에 있어서 합리적, 형평성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지속사업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이 요구된다.

전술한 사업 외에도 경로당 활성화사업, 경로식당 무료급식, 노인일거리마련사업, 민간단체지원, 노인장기요양보호연구 등은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계속사업으로 추진될 것이다.

노인복지분야 예산이
2003년도에는 3.1% 증가한
3903억 5300만원에 그쳤는데
지난 해 경로연금의 예산증액이
지나치게 높아 이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한 데 기인한 것이며,
그 외 사업의 예산은
동등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대폭 증액된 것으로 분석된다.

표 3. 노인복지 예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02년 예산 (A)	2003년 예산 (B)	증감(B-A)
계	378,726	390,353	11,627(3.1)
- 노인시설보호	96,712	133,470	36,758(38.0)
• 운영비지원	49,299	72,084	22,785(46.2)
• 기능보강	46,052	59,980	13,928(30.2)
• 사할린한인특별지원금	1,361	1,406	45(3.3)
- 재가노인지원	281,856	256,690	△25,166(△8.9)
• 경로당지원	11,118	11,833	715(6.4)
• 경로당 활성화사업	440	440	-
• 경로연금	246,000	214,500	△31,500(△12.8)
•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	6,081	8,780	2,699(44.4)
• 노인건강진단	277	468	191(69.0)
• 경로식당 무료급식	7,672	7,672	-
• 결식재가노인식사배달	4,959	5,580	621(12.5)
• 치매상담센터운영	117	234	117(100.0)
• 노인일거리마련사업	607	607	-
•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	1,245	2,002	757(60.8)
• 대한노인회관 신축	1,500	2,000	500(33.3)
• 민간단체지원	1,540	1,540	-
• 노인장기요양보호연구	300	300	-
• 노인안 정밀검진 및 개안수술지원	-	734	734(신규)
- 행정경비	158	193	35(22.2)

자료: 보건복지부, 「세입·세출 예산개요」, 2002. 12.

2) 장애인복지분야 예산

2003년도 장애인복지 예산은 약 2555억원으로 전년도의 약 2327억원 대비 9.8%가 증가하였다. 비록 전년도보다 예산증가율은 낮지만 2002년도에는 아·태장애인경기대회 지원금 89억 9300만원이 포함된 것이므로 실제 많은 예산이 증가되었다고 하겠다.

장애인복지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를 살펴보면, 장애인생활시설 지원에 988억 2400만원의 예산투입을 하고 있다. 시설기능보강은 전년도 대비 47.9%나 예산증액을 하였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신축 7개소, 증·개축 16개소, 시설개 보수 44개소, 장비보강 30개소, 편의시설 설치 47개소, 실비시설 신축 6개소 등이다. 따라서 2003년도에는

장애인 복지시설 거주자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입소시설수를 증가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은 40.4%나 증액한 189억 8300만원이었는데, 주요내용은 근로시설과 보호작업장에 대한 지원시설규모의 증가, 지원단가의 증액, 재활교사의 추가배치, 시설기능보강 등이다. 따라서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지원 및 기능보강 등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직업재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저소득 장애인 지원분야는 14.2%(86억 3500만원)가 증가한 693억 7100만원이 확보되었다. 동 분야 사업의 주요 내용은 2차 장애범주 확대, 등록 장애인 증가 등에 근거하여 지원대상을 늘렸고, 장애등급 1~2급 및 정신지체 3급 중복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의 지급대상을 확대하였으며, 기초생활보호대상가구의 18세 미만 1급 장애아동의 보호자에게 지급되는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의료비지원 대상 및 지원단가를 상향조정하였고, 10세 미만 청각장애아동에 대한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액을 20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증액하였다.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 리모콘 및 음성탁상시계를 3,000명에게 지급하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휴대용 무선신호기를 3,600명에게 지급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새로운 사업개발에 정책적 관심을 두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은 전년도 대비 18.4%(72억 6500만원)가 증액된 467억 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주요 사업내용은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 체육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등에 대한 지원대상 시설과 지원단가를 상향조정하였고, 재가복지봉사센터, 시각장애인 학습 및 재활지원센터 등에 대한 지원액을 증가하였다. 따라서 점차 지역사회중심의 장애인 복지서비스 확충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 분야의 신규사업으로는 정신지체인 자립지원센터 7개소에 대하여 각

2003년도 장애인복지 예산은
약 2555억원으로
전년도의 약 2327억원
대비 9.8%가 증가하였는데,
분야를 살펴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거주자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입소시설수를 증가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500만원을, 장애인 해피콜봉사센터 1개소에 대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24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장애등록 및 예방사업분야 중 장애인생산물 판매시설지원이 무려 139.7%(3억 5200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운영지원 판매시설을 10개소에서 16개소로 늘려 임차료를 지원하고, 운영비 지원액도 6300만원에서 6600만원으로 상향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인생산물 판매시설의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 삶의 활력소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장애인을 위한 주요 복지사업으로는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으로 차량 21대의 유지비, 운전기사 21명의 인건비, 탑승보조자 실비지원 등을 위한 2억 88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편의시설설치시 민축진단 운영지원 3억 5400만원이 확보되었다. 또한 치과유니트 지원대상을 20개소에서 30개소로 상향하였다. 장애인 정보화지원사업은 정보화촉진기금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자체는 계속되지만, 장애인 IT 능력배양사업은 중단되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표 4. 장애인복지 예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02년 예산 (A)	2003년 예산 (B)	증감(B-A)
계	232,667	255,484	22,817(9.8)
- 장애인생활시설 지원	92,553	98,824	6,271(6.8)
• 운영지원	83,390	85,270	1,880(2.3)
• 기능보강	9,163	13,554	4,391(47.9)
- 치과유니트 지원	120	180	60(50.0)
- 직업재활시설 지원	13,516	18,983	5,467(40.4)
• 운영지원	9,037	13,327	4,290(47.5)
• 기능보강	4,479	5,656	1,177(26.3)
- 저소득장애인 지원	60,736	69,371	8,635(14.2)
• 장애수당	44,780	51,864	7,084(15.8)
• 장애아동부양수당	751	935	184(24.5)
• 장애인의료비지원	10,227	10,582	355(3.5)
• 장애인 자녀교육비	3,643	2,700	△943(△25.9)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600	660	60(10.0)
• 재활보조기구교부	735	1,061	326(44.4)
- 장애인자립자금융자 이차보전 및 보증보험료지원	-	1,569	1,569(신 규)

표 4. 계속

(단위: 백만원, %)

구 분	2002년 예산 (A)	2003년 예산 (B)	증감(B-A)
- 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	39,440	46,705	7,265(18.4)
•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21,342	25,007	3,665(17.2)
• 재가복지 봉사센터	1,894	1,990	96(5.1)
• 주간보호시설	1,033	1,629	596(57.7)
• 단기보호시설	259	603	344(132.8)
• 공동생활가정	630	1,029	399(63.3)
• 장애인재활의료시설	1,587	1,742	155(9.8)
• 장애인체육관	303	282	△21(△6.9)
• 지역사회재활시설기능보강	9,484	11,245	1,761(18.6)
•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1,448	1,710	262(18.1)
• 시각장애인 학습 및 재활지원센터	516	542	26(5.0)
• 수화통역센터	545	644	99(18.2)
• 장애인 정보화지원	199	-	△199(△100.0)
• 정신지체인 자립지원센터	-	158	158(신규)
• 장애인IT 능력배양	200	-	△200(△100.0)
• 장애인해피콜봉사센터	-	124	124(신규)
-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	288	288(신규)
- 장애인 종합수련원 건립	5,000	5,000	-
- 장애등록 및 장애 예방	15,377	8,689	△6,688(△43.5)
• 등록진단비지원	1,446	341	△1,105(△76.4)
• 장애인생산물 판매시설지원	252	604	352(139.7)
• 장애인단체지원	4,686	6,784	2,098(44.8)
• 부산아 태장애인경기대회지원	8,993	-	8,993(100.0)
•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개최	-	960	960(신규)
- 편의시설설치 홍보사업	-	408	408(신규)
- 국립재활원 전출금	5,777	6,771	994(17.2)
- 행정지원	147	265	117(79.1)
- 장애인자립자금 융자 ¹⁾	14,000	13,000	△1,000(△17.1)
- 장애인LPG차량 세금인상분지원 ²⁾	72,149	108,413	36,264(50.3)

주: 1) 재정융자특별회계임.

2)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임.

자료: 보건복지부, 「세입·세출 예산개요」, 2002. 12.

3) 보육사업분야 예산

보육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42.6%(896억 5900만원)가 증가한 2999억 3900만원으로 사회복지서비스분야에서 가장 괄목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저출산이 자녀양육부담, 아동보육의 미흡 등에 기인되는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보육사업 중 가장 예산비중이 높은 분야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지원대상을 15,370명에서 40,729명으로 상향하였다. 기존 지원대상을 늘렸을 뿐만 아니라 영아·장애아전담시설, 민간 및 국공립 법인시설 영아반, 장애아 통합시설,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방과후 보육시설 등의 교사에 대한 신규지원이 18,486명 증가하였으며 전반적으로 보수수준을 7% 인상하였다. 특히 영아 및 장애아 전담시설의 교사대 아동비율을 종전의 5인에서 4인으로 완화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비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조치는 종사자의 사기양양, 양질의 교사확보,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보육의 내실화를 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육료 지원은 20.2%(196억 9700만원)가 증가된 1171억 4300만원이 확보되었으며,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은 법정 저소득층 자녀 4만명, 저소득층 자녀 7만 9천명으로 전년도 대비 1만 3천명이 확대된다. 또한 만 5세아 86,982명에 대하여 무상보육이 실시되며, 취학전 장애아동 4,285명을 대상으로 한 무상보육이 신규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농어촌 지역의 보육시설에 대한 차량운영지원액이 월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되어 차량운영의 어려움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그렇지만 사회통합차원에서 취약지역의 보육시설에 대한 차량운영비 지원은 조속히 현실화되어야 할 것이다.

보육시설에의 접근도를 높이기 위한 보육시설 기능보강을 위한 예산은 무려 218.2%(45억 1700만원)나 증가하여 65억 8700만원이 확보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아전담시설 신축 50개소, 장애아전담시설 신축 10개소, 보육정보센터 신축 5개소, 증·개축 시설 50개소, 개·보수 시설 35개소, 장비지원 75개소 등으로 어느 때보다 시설수의 증가와 시설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영아 및 장애아를 위한 전담시설의 증설은 특수보육의 확충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입증하는 것으로 국민의 보육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보육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중앙 및 지방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비 지원

은 151.1%(6억 6500만원)가 증가한 11억 500만원이 확보되어 중앙 및 지방단위에서의 보육정보의 개발 및 공유에 큰 기대가 모아진다. 또한 보육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보육인력자격관리기관의 설치 및 지원에 1억원이 확보되어 있다. 그런데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자질을 비교·검토하고, 보육교사 자질에 대한 학부모 욕구 등을 감안할 때 자격관리기관에 대한 충분한 예산인지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와는 상반되게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보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연구는 많은 학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미 실시되었고, 구체적 정책방안까지 제시되어 있다. 사회복지시설평가의 경우 시범사업을 수행하지 않고도 적절한 평가지표개발, 평가실시, 우수시설 결정 등 일련의 과정이 원만히 진행되었다. 결국 평가인증제와 관련하여 방법론상의 논의는 이미 끝났고, 실제 필요한 것은 정책적 결단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3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과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아쉬움으로 남는다. 즉, 보육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방안강구에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양질의 교사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아동복지분야 예산

아동복지예산은 전년의 9.4%(72억 1100만원) 증가한 842억 9700만원이다. 전체 아동복지분야 예산의 약 77%가 아동시설의 운영지원과 기능보강을 위한 예산이며, 아동건전육성을 위한 예산은 23%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보편적 복지측면의 일반아동을 위한 예산은 매우 미흡할 뿐만 아니라 결식아동을 위한 예산은 오히려 15.3%가 감소되었다는 점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아동시설보호와 관련한 예산은 125%(72억 200만원)가 증가된 649억 4400만원으로 시설보호아동의 규모는 축소되었으나 지원단가를 상향하였고, 보육사 2교대 근무를 지원하기 위한 인건비가 확보되어 양질의 시설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렇지만 아동시설의 1개소 신축, 증·개축 20개소, 개·보수 40개소

전체 아동복지분야 예산중 아동건전육성을 위한 예산은 23%에 불과하여 보편적 복지측면의 일반아동을 위한 예산은 매우 미흡할 뿐만 아니라, 결식아동을 위한 예산은 오히려 15.3%가 감소되었다는 점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표 5. 보육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02년 예산 (A)	2003년 예산 (B)	증감(B-A)
계	210,280	299,939,288	89,659(42.6)
-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05,164	169,240	64,076(60.9)
- 보육료 지원	97,446	117,143	19,697(20.2)
•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48,966	61,191	12,225(25.0)
•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48,480	50,903	2,423(5.0)
• 장애아 무상보육	-	5,049	5,049(신 규)
- 보육시설 운영지원	4,014	4,156	142(3.5)
•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3,445	3,445	-
• 농어촌시설 차량운영지원	569	711	142(25.0)
- 보육시설 기능보강	2,070	6,587	4,517(218.2)
- 보육인프라 구축	440	1,505	1,065(242.0)
• 보육정보센터 운영	440	1,105	665(151.1)
• 평가인증제 실시모형개발	-	100	100(신 규)
• 보육과정 및 프로그램개발	-	200	200(신 규)
• 보육인력자격관리 지원	-	100	100(신 규)
- 어린이집운영	878	978	100(11.4)
- 민간단체지원	57	57	-
- 행정지원	211	273	62(29.4)

자료: 보건복지부, 「세입·세출 예산개요」, 2002. 12.

등 시설의 확충과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은 전년도 3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아동건강육성을 위한 예산은 오히려 소폭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점차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정위탁보호를 위한 예산이 74.3% 증가하였고, 특히 가정위탁지원센터 16개소에 대한 신규지원이 이루어진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또한 날로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예산이 80.6% 증가하였고,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이 향상되었음은 아동학대의 방지와 학대아동의 전문상담 및 치료를 위한 정부의 의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렇지만 소년소녀가장 지원예산의 29.5% 감소, 결식아동 급식지원예산의 15.3% 감소는 소년소녀가장과 결식아동의 발견과정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아동을 위한 민간단체의 활동이 오히려 열기를 더하고 있으며, 예산부족으로 소년소

녀가장과 결식아동의 복지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민간단체의 아쉬움은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의 증가는 버림받는 아동의 증가, 한부모 가정 아동의 증가로 연결되고, 이는 요보호아동의 증가를 초래하여 결국 소년소녀가장과 결식아동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 취약계층 아동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역별 분포를 면밀히 검토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퇴소아동정착금 1백만원을 1,200명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과연 장기간 시설에서 생활한 아동이 그 금액으로 어떻게 정착할 지에 대하여는 재고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자립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사업전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리운영비가 미흡하여 적절한 프로그램의 제공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가족해체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취약계층 아동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역별 분포를 면밀히 검토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표 6. 아동복지 예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02년 예산 (A)	2003년 예산 (B)	증감(B-A)
계	77,086	84,297	7,211(9.4)
- 아동시설보호	57,742	64,944	7,202(12.5)
• 운영지원	53,203	60,253	7,050(13.3)
• 기능보강	4,539	4,691	152(3.3)
- 아동건전 육성	19,270	19,246	△24(△0.1)
• 결연기관 운영	1,361	1,380	19(1.4)
• 입양기관운영	129	136	7(5.4)
• 소년소녀가정 지원	6,879	4,853	△2,026(△29.5)
• 가정위탁보호	2,835	4,942	2,107(74.3)
•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204	274	70(34.3)
• 그룹홈 보호	196	205	9(4.6)
• 퇴소아동정착금	600	600	-
• 어린이 찾아주기 센터	161	198	37(23.0)
• 자립지원센터	123	130	7(5.7)
• 결식아동 급식지원	5,939	5,032	△907(△15.3)
•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809	1,461	652(80.6)
• 어린이날행사	18	18	-
• 입양정보센터운영지원	16	17	1(6.3)
- 행정경비	74	107	33(44.6)

자료: 보건복지부, 「세입·세출 예산개요」, 2002. 12.

5) 가정복지분야 예산

가정복지분야의 예산은 전년도 대비 1.3%(2억 2800만원) 감소하여 177억 9900만원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동 분야 예산의 약 40%가 모자복지시설의 운영지원과 기능보강을 위한 것이고, 약 60%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예산이다. 이러한 예산구성으로 보아 모·부자 복지를 위한 가정복지예산이라고 할 수 없고, 결국 넓은 의미의 가정 복지를 위한 사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모자복지시설을 위한 예산은 9.6%(6억 3100만원) 증가하였으나 대부분 시설증가(모자시설 3개소)와 지원단가의 조정에 필요한 것이며, 시설에서의 프로그램 강화를 위한 예산은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이들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보호 및 교육프로그램은 이들 가정이 빈곤의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제공되지 않음은 단순보호에 그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중·고생 학비 지원예산은 12.1% 감소되었으나 이는 일부

표 7. 여성 및 모·부자가정 지원 예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02년 예산 (A)	2003년 예산 (B)	증감(B-A)
계	18,027	17,799	△228(△1.3)
- 모자복지시설	6,545	7,176	631(9.6)
· 운영지원	5,105	5,681	576(11.3)
· 기능보강	1,440	1,495	55(3.8)
-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11,293	10,065	△1,228(△10.9)
· 중·고생 학비	10,144	8,916	△1,228(△12.1)
· 아동양육비	1,149	1,149	-
- 재가모·부자가정 용자차보전 및 보증보험료 지원	-	241	241(신 규)
- 여성단체 지원	131	131	-
- 국제부담금	7	6	△1(△7.7)
- 행정지원	51	40	△11(△21.7)
- 재가 모·부자가정 용자 ¹⁾	2,700	2,700	△700(△25.9)

주: 1) 재정용자 특별회계임.

자료: 보건복지부, 「세입·세출 예산개요」, 2002. 12.

중학생의 의무교육실시로 지원대상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절약된 예산은 학비 외에 필요한 학용품비, 용돈 등의 현실화를 위한 지원금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렇지 않았음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즉, 학교교육을 계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여 현실에 알맞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6) 기타 사회복지서비스분야 예산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 있어서의 예산은 20.3%(236억 2300만원) 증가한 1400억 1700만원이다. 가장 예산규모가 큰 영역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위한 751억 6100만원인데, 이는 전년도에 신규인원 1,700명에 대한 인건비 9개월 분이다. 또한 전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7,200명에게 지급될 개인휴대용단말기(PDA) 구입비 38억 24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어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영역은 부랑인시설과 사회복지관의 운영지원 및 기능보강으로 지원단가의 상향조정, 지원시설 증가 등에 의하여 예산이 다소 증가하였다. 각종 단체에서 운영하는 재가복지봉사 센터에 대한 지원은 계속될 것이며, 사회복지시설 평가와 사회복지사관리는 동일한 수준에서 계속사업으로 추진될 것이며, 푸드뱅크 운영은 냉장고 및 냉동탑차 등의 증가로 102%의 예산증액이 이루어졌다.

가정의례에 관련된 사업으로는 화장장 설치, 납골당 신축, 화장로 개보수 등은 전년도 대비 다소의 증감은 있으나 유사한 수준에서 지원될 것이며, 또한 가정복지민간단체지원은 전년도 수준에서 지원규모가 동결되었다.

3. 사회복지서비스 부문 예산 평가

사회복지서비스 확충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동 분야 정부예산의 증가로 엿볼 수 있다. 즉, 2003년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예산은 1조 1878억

가정복지분야의 예산은 전년도 대비 1.3% 감소하여 177억 9900만원에 불과하고, 모자복지시설을 위한 예산은 9.6% 증가하였으나, 대부분 시설증가와 지원단가의 조정에 필요한 것이며, 시설에서의 프로그램 강화를 위한 예산은 전무한 실정이다.

표 8.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예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02년 예산 (A)	2003년 예산 (B)	증감(B-A)
계	116,394	140,017	23,623(20.3)
- 부랑인시설	14,456	14,794	338(2.3)
• 운영지원	12,059	12,484	425(3.5)
• 기능보강	2,397	2,310	△87(△3.6)
- 사회복지관 운영	8,570	9,209	639(7.5)
-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4,545	4,910	365(8.0)
- 재가복지봉사 센터운영	7,601	7,982	381(5.0)
- 사회복지협의회	981	1,031	50(5.1)
- 묘지제도행정	19	13	△6(△31.6)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60,579	75,161	14,582(24.1)
- 사회복지전담공무원PDA	-	3,824	3,824(신 규)
- 사회복지공익근무요원	2,701	4,108	1,407(52.1)
- APEC 사회안전망 구축	200	150	△50(△25.5)
- 사회복지시설평가	150	150	-
- 사회복지사관리	345	345	-
- 푸드뱅크운영	488	538	50(10.2)
- 사회행정등	329	379	50(15.2)
- 가정의레지원	14,880	14,711	△169(△1.1)
• 화장장 설치	7,660	7,625	△35(△0.5)
• 납골당 신축	5,584	5,600	16(0.3)
• 화장로 개 보수	1,125	1,125	-
• 가정복지민간단체지원	361	361	-
• 묘지관리전산시스템 개발	150	-	△150(△100.0)
- 적십자사 시설장비지원	-	2,000	2,000(신 규)
- 가정복지운영	115	131	16(13.9)
- 망향의 동산	435	581	{146(33.6)

자료: 보건복지부, 「세입·세출 예산개요」, 2002. 12.

8900만원으로 지난해 최초로 1조원을 돌파한 이후 계속 증가하여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예산증가를 78%보다 훨씬 높은 150%에 달한다. 이는 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받아들여지며 한 단계 발전된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보육사업의 확충으로 자녀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여성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발전된 면모를 보이는 것이다.

사회복지시설의 평가에서 나타난 시설부족, 시설환경의 개선요구 등을 충족시키기 위한 시설확충, 기능개선, 일부 시설의 종사자 2교대 근무제 도입, 인건비 지원확충 등은 복지현장의 이해와 함께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물론 여전히 사회복지시설의 환경, 거주자의 생활수준,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등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음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개선을 위한 현재의 정부의지가 지속된다면 조만간 좋은 결실을 맺을 것으로 믿는다.

아울러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 체육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장애인생산품 판매 등의 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것은 복지대상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들 가족원의 보호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국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활의 활력소를 줄 수 있는 정책이라 하겠다.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노인안 정밀검진 및 개안수술, 저소득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 리모콘 및 음성탁상시계 보급, 청각장애인을 위한 휴대용 무선신호기 보급, 장애인 해피콜봉사센터 운영,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등은 대상별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 현실적인 정책으로 향후 수요파악과 함께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예산분석에서 나타난 정부정책에는 수정 및 보완되어야 할 점이 없지 않다. 이러한 개선방안에는 노인, 장애인, 아동, 모·부자 가정 등 취약계층의 특성에 알맞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그러한 프로그램은 요보호 대상에 대한 단순보호, 효과 없는 직업훈련 및 창업교육에서 벗어나 실질적이고, 장기적으로 효과 있는 자립, 자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보육시설 종사자의 사기양양, 양질의 교사확보,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영아 및 장애아 보육확대 등이 가능하게 되어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보육교사의 지속적 자질관리를 위한 방안은 미흡한 것으로 보여 유치원, 각종 학원 등에 종사하는 인력과의 경쟁관계에서 열세에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 아동복지분야는 아동복지

보육시설 종사자의 사기양양,
양질의 교사 확보,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영아 및 장애아 보육확대 등이
가능하게 되어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보육교사의 지속적 자질관리를
위한 방안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시설에 대한 지원은 증가하였으나 일반아동을 위한 복지와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이 오히려 부족한 것은 사각지대 아동의 건전육성에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또한 무엇보다도 아쉬운 것은 보건복지부의 예산에서 가정의 기능을 강화하고,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가정복지서비스 예산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다.

4. 결론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안락한 복지국가의 건설을 위하여 개인, 사회, 국가가 모두 동참하여 배분적 정의가 달성되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과 사회적 기본단위로서의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강화를 통하여 가능할 것이다. 즉, 소외되는 개인이 없이 사회통합적 차원에서의 정책추진, 개인의 권리와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사회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2003년도의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추진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대응정책과 여성의 취업육구 충족을 위한 정책에 초점을 둔 것이며, 아울러 장애인, 아동, 노인 등의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증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해된다. 특히,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첫 번째 평가가 완료됨에 따라 나타난 시설환경, 시설거주자 욕구 등을 충족시키기 위한 예산투입이 다소 이루어지고 있음도 엿볼 수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발전은 미흡한 수준에 있으며, 사회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한계를 가진다. 특히 시설폐소후의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규모의 지원방안이 강구되지 않고 있으며, 보편적 복지차원의 복지서비스 제공에 인색한 측면이 있다. 더군다나 가족해체, 가족기능 저하 등의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지 않아 문제의 사전예방을 통한 복지비용감소에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